

3차원 슬더페이스트 검사장비 개발

고영테크놀로지

인쇄회로기판(PCB)의 고질적인 납도포 불량
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3차원 슬더페이스트 검사
장비가 한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고영테크놀로지(대표 고광일 <http://www.kohyoung.com>)는 SMT 조립공정에서 납체적 및 납형상 등 납도포 상태를 입체적인 영상으로 구현해 납도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3차원 슬더페이스트 검사장비(모델명 KY-3030)를 개발했다.

‘모아라 간섭’이란 광학원리를 이용한 이 제품은 물체(납도포 상태)의 높이값을 포함한 네 개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 평면과 네 개 이미지를 간섭시킴으로써 증폭된 물체의 높이 정보를 취득한다. 이때 납이 도포된 위치 뿐만 아니라 부피를 계산하고 형상변형 등을 초당 12.5cm 속도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제품은 미납·과납·무납·위치불량·형상불량·코플래너티(co-planarity)불량 등 다양한 종류의 납도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량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여준다. 특히 스크린 프린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모든 생산라인에 걸쳐 일정한 납도포 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등 공정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또 기존 2차원적인 검사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선 별도의 숙련된 기술인력이 필요했지만 이 제품은 윈도XP를 시스템 운용체제로 채택, 30분

간 장비운영 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이 가능할 정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뛰어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고광일 사장은 “3차원 슬더페이스트 검사장비는 기존의 레이저 포인트방식이나 슬릿빔에 의한 측정 검사방식에 비해 빠른 실시간 검사능력과 높은 검사 신뢰성을 보여준다”며 “올해 약 70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윈터치 방식 광섬유절단기 개발

금오통신

외국제품에 비해 성능은 뛰어나면서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한 광섬유절단기가 개발됐다.

대덕밸리의 광 토털솔루션 벤처기업 금오통신(대표 박봉수 <http://k-optics.com>)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광섬유절단기 ‘KC-40’을 개발,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칼날의 홀을 기존 일본 제품이 12홀이었던 것에 비해 16홀로 확장시킴으로써 칼날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윈터치 방식을 채택, 여러 단계에 걸쳐 절단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동작만으로 신속하게 절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부품을 단순화함으로써 제품의 고장률을 최소화한 이 제품은 반자동제품에 손잡이를 부착,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정교하게 절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품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일본의 후지쿠라와 스미모토 제품 수입에 의존해왔다.

금오통신은 이달중 양산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제품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봉수 사장은 “현재 모아텔레콤·한백전자 등 국내 7개 업체를 협력사로 두고 공동 영업 마케팅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 등 해외시장 공략을 목표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층박막 두께 자동측정기 개발

넥스타테크놀로지

반도체장비업체 넥스타테크놀로지(대표 김정덕 <http://www.nexstar21.com>)는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용 다층박막 두께 자동측정장비(모델명 NST-1500)를 개발했다.

상하좌우 이동용 리니어모터, 두께 측정용 센서, 위치검출용 비전(vision) 시스템 등이 장착된 'NST-1500'은 박막 두께가 300옹스트롬(Å)~50미크론(μm)인 산화주석인듐(ITO), 산화마그네슘(MgO) 등 다양한 종류의 다중코팅막을 비파괴 방식으로 자동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또 자체 개발한 반사형 간섭분광방식의 비접촉·비파괴 광학측정센서와 알고리즘을 적용해 측정정밀도가 뛰어나고 측정 소요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넥스타테크놀로지는 최근 이 장비를 국내 PDP 제조업체에 공급,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향후 웨이퍼·액정표시장

치·유기EL·PDP 등에 적용하는 인라인용 두께측정장비와 결합검사장비, 3차원 검사측정장비 등을 추가로 개발해 사업영역을 차세대 비파괴검사장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덕 사장은 “NST-1500 제품은 단일박막은 물론 다층박막을 검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비인데다 미국이나 일본산 장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시장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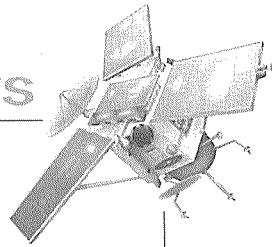
자동차용 실시간 문자정보 및 동영상 제공장치 개발

다빛정보기술



정보통신 벤처기업 다빛정보기술(대표 전상권 <http://www.davit.co.kr>)은 영상광고사업이 주수익원인 광고사를 타깃으로 한 자동차용 동영상 및 실시간 부가정보 서비스 단말기(모델명 BAS-20x)를 개발했다.

FM부가방송의 일종으로 MBC가 96년부터 추진중인 DARC(DATA Radio Channel)서비스를 겨냥한 이 제품은 신규 주파수를 받지 않아도 뉴스, 증권, 교통, 날씨 등 실시간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영역이 전국적



으로 넓고 완벽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BAS-20x는 특히 무선데이터통신(CDMA)을 이용한 실시간 메시지 송출과 광고 방영내역을 무선망으로 집계할 수 있으며, 실시간 부가정보를 고화질 광고 동영상 위에 문자로 동시에 표현 가능해 신규 매체형 광고사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회사측은 “이미 일부 광고주들이 제품 신뢰성 및 기능의 우수함을 인정, 신제품생산 준비에 들어갔으며 일본 및 미국의 해외 바이어와도 수출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다빛정보기술측은 이 제품의 특허출원(10-2002-0012271) 및 실용신안(제0279884호)을 획득했다.

다빛정보기술은 향후 2005년 8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공략을 목표로 다양한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다.

입자를 첨가, 강력한 항균 및 탈취 기능 등을 제공해 식품 보존 및 건강 위생을 크게 강화한 제품이다.

양문형 냉장고 ‘나노실버 클라쎈’은 가스켓과 냉장고 서랍, 냉기공급 덕트 등에 나노실버를 적용해 함유된 은에서 발생하는 친건강 이온으로 일반 냉장고에 비해 항균 효능이 월등하고 음식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나노실버 클라쎈 외에 2003년형 산소에어컨 수피아 O2에도 나노기술을 적용한 은 입자를 함유시켜 세균 및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억제했다.

이 제품은 또 공기중 산소와 질소를 분리, 청정 산소만을 실내로 유입시켜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산소부족 현상을 막을 뿐 아니라 천연 솔향 아로마테라피와 음이온 공기청정기능을 더해 실내에서도 천연 삼림욕을 즐기는 듯한 효과를 낸다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나노실버 냉장고·에어컨 발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김충훈 <http://www.dwe.co.kr>)가 나노실버 기술을 적용한 양문형 냉장고(모델명 FR-S580CGI, FR-S580CGB)와 에어컨(모델명 DP-158SA)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친건강 가전업체로서의 전략을 발표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발표한 나노실버 냉장고 및 에어컨은 나노폴리 기술과 은의 항균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주요 부위에 미세한 은

모바일튜너 개발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강호문 <http://www.sem.samsung.co.kr>)는 지상파 방송·유선 방송 등을 휴대폰·PDA 등 모바일 제품에서 직접 시청하는 데 필요한 최소형 튜너를 개발,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제품은 크기 30×20×3mm, 부피 1.8cc로 설계, 일반 TV용 튜너(50×40×16mm·32.0cc)에

비해 크기와 부피를 크게 줄였으며 소비전력이 최대 0.75W로 저전력을 요구하는 모바일기에 적합하다. 또 DC-DC 컨버터를 내장, 5V의 단일 전원으로도 작동 가능하다.

삼성전기측은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초소형·저소비전력이 요구되는 모바일용 튜너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주요 부품을 IC내부에 집적하고 공심 코일을 소형화함으로써 초소형 튜너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이효범 상무는 “초소형 튜너 개발을 계기로 현재 카메라폰과 동영상폰 중심의 휴대폰 시장이 이른 시일내에 TV폰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30만개 이상을 판매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용 튜너는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RF 신호를 증폭해 중간주파수로 변환시키는 튜너부와 중간주파수를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복조부로 구성돼 있다.

‘센트리노’ 노트북 발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인텔의 모바일 플랫폼 센트리노를 탑재, RW/DVD콤보 드라이브, 14인치 TFT LCD를 장착하고도 두께 2.38cm, 무게 1.8kg을 실현한 노트북PC ‘센스X10’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두께와 무게를 25~34% 줄인 9.5mm 슬림 RW/DVD 콤보드라이브와 5.2mm 초슬림

14.1인치 LCD를 개발, 23.8mm 초박형을 실현했으며 철저한 저전력 기술 구현으로 배터리 소비전력을 38% 절감해 사용시간을 30분 이상 늘렸다.

중앙처리장치(CPU)·메모리·하드디스크드라이브 사양에 따라 3모델로 출시되는 ‘센스X10’은 지난 2월에 개최된 인텔개발자포럼(IDF)에서 최초의 센트리노 제품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오늘 독일 세빛, 미국 뉴욕 등 전세계 4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인텔 센트리노 론칭 행사에서도 대표 제품으로 사용된다.

삼성전자 컴퓨터시스템사업부 전략마케팅 김현수 팀장은 “이번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광학기기 장착 노트북PC로, 삼성전자가 2년 이상 준비해온 제품”이라면서 “이 제품을 통해 고객이 그동안 염원하던 고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꿈의 노트북PC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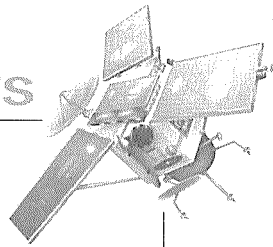
세계 최대 84인치 무간격 멀티 PDP 개발

오리온PDP

화면간 간격(seam)이 3mm, 두께가 10cm에 불과한 84인치급 초대형 무간격(seamless) 멀티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이 세계 최초로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오리온전기에서 분사한 PDP 전문업체 오리온 PDP(대표 김준동)는 42인치 와이드 컬러 PDP 4장을 연결한 84인치 무간격 멀티 PDP를 개발, 4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패널의 유리 가장자리(edge)까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DZF(Dead Zone Free)' 기술과 전원을 한방향으로 유입시키고 회수하는 'OPSR(One-side Power Supply & Recovery)'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 기존 멀티 디스플레이 제품의 화면 간격과 두께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개발해 PC·DVD·TV 등 다양한 소스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으며 4개 화면의 개별 구현 및 전체 확대기능과 2개 화면 구현기능 등을 지원한다.

오리온PDP는 현재 84인치 멀티 PDP 기술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40여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마친 상태다.

회사측은 "42인치 단일제품보다 84인치 멀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앞으로 멀티 PDP 전문 생산업체로 전환할 것"이라며 "향후 84인치 제품을 월 500대 규모로 연간 6000대 가량 판매, 2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멀티 디스플레이는 쇼핑몰, 회의실, 전시 및 공연홀 등 대형 인포메이션 보드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나 화면 간격을 줄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기술도 브라운관(CRT) 중심에서 LCD·PDP·LED 등 평판디스플레이를 붙이는 방식과 프로젝션 방식의 멀티큐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와이파이 노트북칩 '센트리노' 발표

인텔

와이파이 기능을 내장한 인텔의 노트북 컴퓨터용 프로세서인 센트리노가 마침내 선보인다.

인텔은 1뉴욕에서 노트북 PC용 프로세서인 펜티엄-M, 칩세트, 와이파이 모듈 등 3가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 센트리노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델컴퓨터·HP 등 주요 PC업체들도 센트리노를 탑재한 노트북 컴퓨터를 발표한다.

인텔은 센트리노 판촉 경비만 3억달러를 책정하는 등 와이파이 분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인텔은 지난해 10월 와이파이 관련 업체에 총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지금까지 11개 기업에 투자하는 등 무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고에너지밀도 커패시터 개발

전기연구원·삼호콘덴서공업

기존 국산제품에 비해 부피가 5분의 1 가량 줄어든 에너지 저장용 고전압 커패시터가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 신전력기기연구그룹 이병운 박사팀은 삼화콘덴서공업과 공동으로 1kg당 에너지밀도가 1kJ(Joule)로 기존 국내 제품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5배 가량 향상된 최대 전압 30KV급 고전압 커패시터를 개발했다.

1줄(J)은 1뉴턴(N)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이는 동안에 하는 일 및 그 일로 환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며 1와트의 전력을 1초간 소비하는 일의 양과 같다.

기존 국내 제품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0.2kJ/kg

로 고전압 커패시터를 요구하는 민수 및 국방 분야에서는 주로 외산 제품을 수입, 사용해 이번 개발로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기술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0.7kJ/kg 이상의 고에너지 커패시터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유출 규제품목으로 지정, 핵심기술의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고에너지밀도 제품이 전투기·여객기·인공위성 등 각종 비행체와 고성능 레이저 및 레이더 등 첨단 고성능 민수·군수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면서 선진 외국의 기술장벽 및 수출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에너지밀도형 커패시터의 독자적인 개발이 절실했으며 연구팀은 유전체에 금속을 수백 옹스트롬(Å) 두께로 증착해 고에너지 밀도를 실현했다.

연구팀은 이번 개발로 군사장비의 기동성과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선진국방을 위한 고성능 무기체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를 채용한 고부가가치 군사기술과 장비 수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윤 박사는 “고에너지밀도 커패시터가 민수 및 군수용으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응용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삼화콘덴서가 양산에 착수해 수입대체 및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문센서가 구비된
휴대용 저장장치 첫 개발**

패스모스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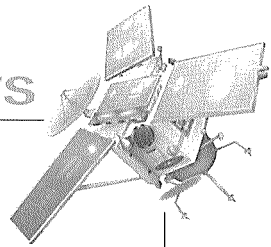
지난 2001년 11월 설립된 지문인증솔루션 개발전문회사인 패스모스(대표 조수아 석호 <http://www.myBlackBox.com>)는 지문인식센서가 구비된 휴대용 저장장치인 '마이블랙박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마이블랙박스는 해외에 먼저 소개돼 호평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트북 최다 판매업체인 노트북숍닷컴(NotebookShop.com)과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호주·유럽·중국 등 다양한 지역의 PC·노트북 판매 및 유통회사들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저장장치는 지문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금융거래용 전자인증서는 물론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나 중요한 문서 등 개인정보 자산과 사생활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개인용 저장장치다.

분실이나 도난시에도 타인이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 어디에서나 SMTP/POP3의 수정없이 자신의 e메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USB포트만 연결하면 MS윈도 환경의 어느 PC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사용한 PC에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아 정보유출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 하나의 PC로 여러 명이 사용해도 각자의 문서·인터넷 북마크·e메일 등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PC보



안용 소프트웨어인 'pcPassMos'를 제공, 지문을 이용한 PC보안과 문서보안도 가능하다.

최규남 기술이사는 "마이블랙박스의 로컬인증 방식이 채택되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패스모스의 본인인증 솔루션이 내부 정보보호와 고객 정보보호가 필요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필수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국내외에서 개인 정보보호 경향 및 보안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노트북의 FDD를 대체할 휴대형 저장장치 활용이 늘고 있어 올해 180억원 이상의 매출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스모스는 지문인식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TTI의 기술 및 지적재산을 인수해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올해부터 금융기관 및 e비즈 기업을 위한 기업용 본인인증 솔루션, m비즈를 위한 모듈제품, 개인용 디지털기기, PC보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의 3분의 1 정도인 1.2 μ m 초박막 시트를 제조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연구팀은 200nm급의 티탄산바륨(BaTiO) 세라믹 입자를 유기용매에 녹아들게 한 후 이를 박막 시트 위에 고분산해 입자를 고르게 제배열하고 적층해 균일하고 안정성 있는 MLCC용 박막 시트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박막 시트를 MLCC에 적용할 경우 3216 크기(3.2 .6mm) 커패시터를 기준으로 기존에 비해 2~3배인 최고 900층까지 쌓을 수 있어 정전용량도 이에 비례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3.5 μ m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MLCC 박막 제조기술이 단숨에 1.3 μ m 박막을 채택하고 있는 무라타·TDK·다이요유덴 등 일본업체를 추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

또 작은 크기로도 고용량 영역대를 커버할 수 있어 10~100 μ F대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커패시터나 전해 커패시터 시장을 MLCC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동일체적당 최적의 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 0402 크기의 MLCC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1년 0603 크기의 커패시터를 개발한 바 있는 삼성전기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0402 크기의 MLCC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백 교수는 "MLCC의 사용범위를 기존 용량대보다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증가시킴으로써 MLCC 시장의 증가는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전기는 곧 양산화 시스템 개발 등에 착수해 초박형 고용량 MLCC의 양산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MLCC 초박막 시트 개발

한양대 삼성전자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의 정전용량을 3배 가량 늘릴 수 있는 초박막 시트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한양대 백운규 교수팀과 삼성전기(대표 강호문) 중앙연구소(연구책임 김종희 상무)은 현재 국내 MLCC 제조업체들이 채택하는 박막 시트

한편 백 교수팀은 동 대학 박재근 교수와 공동으로 메모리 및 비메모리반도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공정중 연마과정에 사용되는 재료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나노 세리아 슬러리(slurry)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슬러리 기술은 산화막의 연마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산화막과 질화막의 선택적 연마속도비를 제어할 수 있다. 또 연마 후 표면의 굽힘도 거의 없으며 표면 위에 흡착되는 미세 입자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LCD용 수계세정제 개발

크린크리에티브

정보전자소재 전문업체 크린크리에티브(대표 정구동 <http://www.cleancreative.co.kr>)은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에 쓰이는 공정재료인 수계세정제를 개발, 충북 음성공장에 연 1만톤 규모로 생산설비를 갖추고 이달부터 LG필립스LCD 등에 공급중이다.

수계세정제는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한 후 남아있는 잔유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물질로 기존 유기용매를 대체해 TFT LCD 생산공정의 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연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합작법인 설립 통해 중국 VoIP 시장 진출

포스데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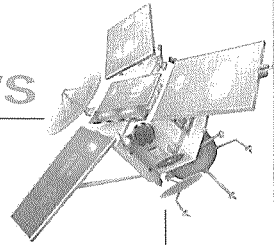
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 <http://www.posdata.co.kr>)가 중국의 통신업체인 베이징스통네트웍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의 음성데이터통합(VoIP)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양사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김광호 사장과 당닝 베이징스통네트웍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VoIP 공동개발과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고, 중국내 차세대 통신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교환했다. 베이징스통은 심진제 인터넷 솔루션인 숫자도메인 VoIP사업, 110경보시스템사업 등을 추진하는 통신회사다.

포스데이타는 이달부터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오는 6월께 북경에서 현지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거점도시에 인터넷 전화국을 설립해 음성 위주의 VoIP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기존 유선전화시장을 대체하는 차세대 통신사업자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포스데이타는 덧붙였다.

합작법인은 특히 베이징 근교에 공장을 신설해 올 하반기 부터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VoIP



폰의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베이징스통은 지난달 베이징 현지에서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VoIP폰에 대한 기술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로써 포스데이타는 중국에서 기존 시스템통합·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지능형빌딩시스템(IBS) 사업에 이어 VoIP 분야로 사업 품목을 다각화하게 됐으며, VoIP폰을 자사 DVR '포스위치'에 이은 또 하나의 효자상품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번 이상의 반복쓰기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2개의 트랜지스터와 2개의 커패시터(capacitor)로 구성된 기존 Fe램과는 달리 각각 1개의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로 구성된 칩 생산 효율성을 높였으며 새로운 강유전체 물질인 비스무트란타늄티타네이트(BLT)를 사용해 칩의 크기를 줄이고 소자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또 별도의 추가 기술개발 없이도 64M급 Fe램까지 제작이 가능하며 단일소자 또는 내장형(임베디드) 메모리 상태로 SoC에 응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10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되는 제15회 ISIF(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grated Ferroelectrics) 학회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 최초 메가급 Fe램 상용화 기술 개발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 <http://www.hynix.com>)가 차세대 이동통신 및 시스템 온칩(SoC)용 메모리로 평가되는 고집적 강유전체 메모리(Fe램:Ferroelectric RAM)의 상용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Fe램은 D램의 고집적도, S램의 고속동작, 플래시메모리의 비휘발성 등의 장점만을 모아 제작된 통합 메모리이며 D램·S램·플래시메모리를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로 평가된다.

시장규모는 이동전화단말기·개인휴대단말기(PDA)·스마트폰·스마트카드 등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2006년께 1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반도체의 Fe램은 0.25미크론(μm)의 미세가공기술을 적용한 4M 및 8M Fe램 샘플로, 3.0V의 동작전압에서 70나노초(1ns는 10억분의 1초)의 고속으로 쓰기와 읽기가 가능하며 1천억

8웨이 프로라이언트 DL700 시리즈 발표

한국HP

한국HP(대표 최준근)는 새로운 HP F8 칩셋과 핫플러그 레이드 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 성능과 가용성이 대폭 향상된 두 종류의 8웨이 서버 신제품 'HP 프로라이언트 DL740'과 'HP 프로라이언트 DL760'을 발표했다.

특히 DL740은 LGIBM의 효자품목인 x400과 같은 4U 기반의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는 제품으로 한국HP는 LGIBM이 점유하고 있는 하이엔드 IA서버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프로라이언트 DL700 시리즈의 가장 최신 버전인 이틀 신규 서버제품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HP 프로라이언

트 에센셜 파운데이션 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성능·데이터베이스·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IT 통합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한국HP는 이번 제품발표와 함께 프로라이언트 제품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프로라이언트 에센셜 소프트웨어'에 'HP 인사이트 매니저 7 SP2'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팩'을 추가했으며, '프로라이언트 에센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팩'을 통해 포괄적인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 인식기술 탑재 POS 개발

히테크·시스윌

음성인식기술이 적용된 POS가 개발됐다.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 전문업체인 히테크(대표 이우희 <http://www.heetech.co.kr>)는시스윌(대표 김연수 <http://www.syswill.com>)과 공동으로 음성인식·합성기술을 탑재한 POS '로빈(ROBIN)'을 개발했다.

음성인식기술이 장착된 로빈은 현장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을 때 별도의 메모를 할 필요없이 무선마이크를 통해 음성으로 주문내역을 POS에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주문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 POS가 설치된 프런트데스크에서도 키보드를 눌러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음성으로 각종 데이터를 즉시 입력·조회할 수 있다.

히테크 장삼식 전무는 "현재 현장에서 시험테스트를 진행하며 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일본 NEC·국내 음성전문업체인 시스윌 등과 협력해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세대 WCDAM(UMTS) 동영상 휴대폰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 / www.lge.com)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3GSM World Congress』에서 노키아, 노텔, 에릭슨 등 세계적인 WCDMA 장비업체들과 공동으로, LG전자의 3세대 WCDAM(UMTS) 동영상 휴대폰을 이용한 화상 통화시연을 선보이며 유럽 3G휴대폰시장 공략에 나섰다.

『3GSM World Congress』는 유럽 최대 이동통신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올해는 3세대(3G) 동화상 통화시연 등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을 노키아, 노텔, 에릭슨 등 장비업체들이 LG전자 단말기를 이용해 앞다퉈 선보였다.

또한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W-CDMA 단말기를 비롯, GSM·PRS·CDMA 겸용 비동기 MT-2000 단말기 등 다양한 3세대 IMT-2000 단말기를 선보여 전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